

박근혜대표 피습

5·3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與 “수도권 박빙지역 다 넘어갔다”

대전 등 백중지역 동정표 쏠릴 가능성
수사 결과 따라 ‘초대형 후폭풍’ 예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선거 유세 테러’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이번 사건이 5·3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론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박모(52)씨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우려하며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박씨를 즉각 출당시키기로 하는 등 파문 차단에 안간힘을 썼다.

21일 정치권은 박근혜 한나라당 피습 사건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부동층 가운데 일부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판세는 더욱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전과 제주처럼 한나라당이 우세를 확보하지 못했던 지역의 판세도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이젠 경합지역도 어렵게 됐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다른 의원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생긴 변수도 아니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며 “그동안 박빙으로 분류됐던 수도권과 기초단체장들도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테러로 치부하기 보다는 정치 쟁점

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테러’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10여일 남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종 ‘정치적 테러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택순 경찰청장

의 사퇴와 함께 검경 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를 테러한 지모씨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인 박모씨가 이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진다면 정치 쟁점화는 피할 수 없어 여당에는 초대형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등 전체적인 선거 관세에서 여당의 지지세가 꺾이며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여당의 패배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석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광

주지역 모 의원은 “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은 수도권 선거만이 아니라 광주지역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라며 “그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힘이 쏙 빠진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권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자극, 열린우리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와 같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견제하기 위해 여권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는 대선 당시와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많아 여권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진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한나라 동정표 늘어나나 두자리수 득표여부 관심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터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광주·전남의 한나라당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경우 ‘두자리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의 당 지지도가 3~4%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꿈의 득표율’인 셈이다.

이를 위해 한영 전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박재순 전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을 전남지사 후보로 공천

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모두 13명의 후보를 내며 전에 없는 적극성을 보였다.

박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18일 광주에 나그네를 다진 뒤 총장로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유세에서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후보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고, 당 대표가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기억도 별로 없다”면서 “지방선거 시작 첫 날 첫 거리유세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각별한 ‘호남 공들이기’를 강조했다.

지역정가에선 유권자들의 ‘연민’을 자극해 한나라당 표심을 결집시킬 것이라는 분석과 박 대표의 지원 유세가 힘들어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저녁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 사진 왼쪽 손 끝에 흉기 끝 부분이 보인다. 한나라당 제공.

박대표 유세 지원 힘들 듯

상처 60바늘 꿰매...정상 생활까지 수개월 걸려

거리유세 도중 괴한에 피습당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상처는 당초 예상보다 심각했다. 특히 박 대표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필요해 지방선거 유세 현장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긴급 수술을 집도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21일 수술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른쪽 얼굴) 귀옆부터 입옆까지 심각한 정도로 심부까지 열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얼굴 옆면 11cm 길이의 자상 이외에 특별한 부상은 없으며, 이 역시 경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생명에 지장은 없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의료진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침샘과 턱근육이 손상될 정도로 상처가 깊어 한동안은 유통식품 밖에 섭취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유자재로 말을 하거나 단단한 것을 씹는 등 일상 생활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몇달은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입원 기간도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의료진들은 전했다. 따라서 그간 각종 선거캠페인도 누렸던 박 대표의 현장

지원유세 모습은 이번 지방선거기간에는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성형수술 등을 거쳐 완전히 회복 후 흉터가 얼굴에 남을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의료진은 “길이 11cm에 깊이 1~3cm의 상처 부위를 60여 바늘 꿰맸으며 입원기간은 1주일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2차 수술을 하면 육안으로 (상처의) 티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티가 완전히 안 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아 얼굴에 다른 기형이 남을 위험은 전혀 없으며, 침샘도 완벽하게 봉합돼 미세한 흉터 이외의 추가 합병증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료진들은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머리카락 보다 가는 실로 봉합해, 흉터가 남긴 남겠지만 아주 흉한 것은 안 남는다”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2차 성형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뺨대로 미음을 조금 마신 뒤 소독치료를 받았으며, 회진 의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표 공격 지세 14년 복역한 전과 8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모(50)씨는 장기 복역과 건강 악화로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인물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과 8범인 지씨는 1991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4년 4개월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청송보호소에서 가출소했다. 그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짬짬방과 목욕탕 등을 전전했고 매달 생활보호대상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18만원으로 생활해 왔다.

지씨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집창촌

인 일명 ‘깍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곳에서 거주하지는 않은 채 떠돌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인 지씨는 양로원에 있는 어머니(81)와 왕래도 단절돼 사실상 사고무친의 외톨이로 지내 왔으며 당도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도 좋지 못하다. 그는 복역 중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경쟁보호조치를 받던 작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Daegu (대한조선(주) 임원조빙 및 경력신임사원 모집) featuring a ship and recruitment details. The ad includes the slogan '21 Century With The Daegu-Cheong' and lists various job positions and benefits.